

'친박계 저항'에 비대위-혁신위 무산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못해 법적 근거 없어... 김용태 의원 혁신위장 사퇴

새누리당이 17일 '친박계의 저항'에 비대위, 혁신위 출범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총선 참패 수습책으로 내놓았던 '정진석 비대위'와 '김용태 혁신위'가 모두 무산되면서 새누리당은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대혼돈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정진석 비대위'와 '김용태 혁신위'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새누리당 당헌에 따라 혁신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상임전국위에서부터 의결정족수 미달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또 뒤이어 열릴 예정이던 전국위 역시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전국위는 '정진석 비대위'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였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조차 하지 못하면서 '정진석 비대위' 역시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이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의 회의 개최 무산은 친박계가 조직적인 저항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태출 김태홍 이장우 김선동 당선인 및 의원 등 친박계 초재선 20인은 전날 집단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태 혁신위원장과 일부 비대위원 인선을 문제 삼으며 비대위-혁신위 추진 불가 가능성을 경고했다.

총선 참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친박계로서는 표 대결을 통한 혁신위-비대위 무력화 보다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은 곧바로 혁신위원장 직을 던지며 친박계를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새누리당 전국위원회가 무산된 후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원장 사퇴를 밝히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견을 갖고 "오늘 전국 상임위와 전국위원회가 동시에 무산됐다"며 "국민들과 당원들께 얽드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이틀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가졌다"며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한 톨에 받았지만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고 상임전국위를 무산시킨 친박계

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저같은 사람에게 3번 연속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은혜를 주신 국민들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저는 혁신위원장을 사퇴한다"고 혁신위원장 사퇴를 발표했다. 이어 "국민에게 무릎을 꿇을지언정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며 "이제 국민과 당원들께 은혜를 갚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이날 회의 무산 책임을 친박계에 돌렸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상임전국위 무산 직후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서둘러 회의를 빠져나가는 등 친박계에 대한 분노를 에둘러 표시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모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국위와 상임전국위 모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며 "정말 죄송하다.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받겠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도당, 이세종 열사 추모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제36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맞아 17일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

5.18추모추진위원회 전북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갑봉 사무처장을 비롯한 당직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5·18민주화운동 영상물 상영이 있었으며 묵념과 헌화, 기념사, 5·18 경과보고,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갑봉 사무처장은 "고귀한 목숨을 민주화 제단에 바친 5.18 민주영령들의 뜻을 기리고 부상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다"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던 이세종 열사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세종 열사는 5.18 첫 희생자로 1980년 5월18일 자정께 전북대에 들어온 계엄군에 쫓기다 교내 학생회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도당 "임행진곡 기념곡 지정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하 더민주 전북도당)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최근 5.18의 정신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최근 여야 3당 원내대표단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에 대한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호헌처에 지시했지만 지난 16일 관련 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합창만 하기로 했다. 이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모처럼 형성된 여야 협치의 성과물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이용호 당선인 "총향제 예산확보"

이용호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인(남원 임실순창)은 17일 "제8회 총향제의 성공적 마무리는 남원 시민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의 역량이 만들어 낸 것"이라며 "내년 총향제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또 "총향제추진위원회와 남원시 공무원의 노력에 찬사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경제비상대책기구' 구성 박차

김종인 대표가 직접 맡을 듯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경제비상대책 총괄 TF(태스크포스)를 비롯해 국민연금 체계 개선,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4개 분야의 TF를 구성해 정책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정책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경제비상대책 총괄 TF는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제비상대책기구'로,

당시 당무위는 김 대표에게 구성 권한을 위임했다.

실제로 경제비상대책 총괄 TF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직접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장도 김 대표에게 위원장직을 부탁했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TF는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이, 국민연금 체계 개편 TF는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맡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TF 위원장은 추후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성주 기자

안, 박준영 영장에 "당헌당규 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7일 검찰이 공천 한금 수수 의혹으로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당헌당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한 언론사 주최의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포상과 징계) 2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성주 기자

도의회 문건위, 소년체전 선수단 격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7일 2016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전북 선수단의 선전을 격려했다.

문건위원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물론 대회 기간 중 개별 선수들이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육회 관계자들과 지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건위 이성일 위원장은 "성적보다는 무더운 날씨 속에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16년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8일부터 31일 까지 4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북도는 36개 종목 1,115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농업인력 육성 · 전북 인구 늘리기 등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17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의원들은 농업인력육성, 체육 시설확충, 장애인건강관리, 산불감시, 주민소통행진, 일조피해, 인구늘리기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5분 발언에는 이호근(고창1),강영수(전주4),한완수(임실),최영일(순창),이현숙(무소속),정호영(김제1),김현철(진안) 의원이 나섰다.

▲이호근 의원 = 농업인력 육성책 마련 촉구 이 의원은 "2015년 기준 도내 농림어가는 26만명으로 2010년보다 18.2%나 감소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만3,000명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농림어업 20만 붕괴는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삼락농장에서 핵심기지는 농민"이라며 "농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 육성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실행 로드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영수 의원 = 도 체육 인프라의 기대 부응 주문 강 의원은 "전북도 생활체육 동호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동호인 클럽 수는 4,917개, 동호인 수는 19만7,000여명으로 연평균 5.8%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은 1,037개소로서 전국 2만,317개 대비 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전북도의회 5분 발언

이호근, 후계 농업인 선정·육성을 강영수, 도 체육 인프라 확충을 한완수,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 필요 최영일, 산불감시초소 관리 철저를 이현숙, 건설 폐기물 업체 행정지도를 정호영, 교량 일조량 피해대책 강구를 김현철, 인구 늘리기 대안 마련해야

강 의원은 "체육 인프라 확보는 재정형편상 사업투자에 어려움은 있지만 도민 만족도가 삶의 질 제고로 나타나는 만큼 공공체육 시설 확충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한완수 의원 =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병원 필요성 강조 한 의원은 "장애인 중 75.8%가 장애와 관련 폐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조기 발견의 기회가 거의 없다. 특히 도내 건강검진 지정병원이 2015년 기준 248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건강검진은 공공의료서비스이며



이호근 의원, 강영수 의원, 한완수 의원, 최영일 의원, 이현숙 의원, 정호영 의원, 김현철 의원

도민 누구나 평등한 조건으로 건강검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 지정병원 중 여건이 나은 곳을 대상으로 전북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 지정 등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일 의원 = 산불감시초소 관리와 현실화된 임금 대책 촉구 최 의원은 "총 171개 초소 중 상태가 좋은 곳은 단 29개소(16.9%)에 불과 했고 임금 역시 100만원 내외다. 이는 산불감시가 실질적인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색내기용 목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가 지원하는 산불감시원 임금 비율은 단 12%에 불과하고 나머지 88%는 시군 부담이다. 산불감시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의원 = 건설 폐기물 업체 행정지도 계획과 실천과정 요청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이후 2년간 건설 폐기물 업체들에게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한 시설보완 자정기간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호영 의원 = 교량으로 발생하는 일조량 피해대책 강구 주장 정 의원은 "전북은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나 철도 건설이 유난이 많고 인근 농경지는 일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민들 대부분이 이러한 일조피해조차 모르는 상태다. 주변 환경 피해를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농민들의 권리를 행정이 찾아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일조 피해 발생 지역 분포와 농작물 현황 조사, ▲일조피해 전문 공간 정보센터 지정 통한 피해율 산정, ▲분쟁 조정 전담 TF팀 운영 등 대안을 제시했다.

▲김현철 의원 = 전북 인구 늘리기 현실적 대안 마련 지적 김 의원은 "인선 6기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전북도 인구는 186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3,200여명이 감소한데 최근 4개월 동안에는 무려 3,500여명이 감소했다. 시군에서 인구늘리기와 관련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이에 발맞춰야 할 도가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인구목표치를 제기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관위야 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인구 정책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